

금호P&B화학, Epoxy 공장 가동중지

2월 한달간 생산중단 3월 재개 ... 원가상승 압박 “더 버티기 힘들다”

금호P&B화학이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월부터 Epoxy Resin 공장 가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poxy 가격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3년 3/4분기부터 벤젠, 프로필렌 가격강세가 이어져 BPA, 페놀, 아세톤 등의 가격인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Epoxy 가격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금호P&B화학 관계자는 “벤젠과 프로필렌 가격인상에 따른 원가압박이 심해 BPA의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수요기업들에 공급해야 할 물량을 줄일 수도 없어 가동중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금호P&B화학은 BPA 국내 독점 생산기업으로 수요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물량 공급의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호P&B화학의 Epoxy Resin은 BPA에 비해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며 생산중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벤젠가격은 2003년 4/4분기 톤당 평균 450달러에서 2004년 1월 585달러로 135달러 급등하고 프로필렌은 563달러에서 715달러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페놀, 아세톤 생산단가는 130달러, ECH는 국내 생산제품을 기준으로 150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원단위를 감안한 BPA 인상분은 145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에폭시의 공급가격이 2003년 2/4분기 이후 지속돼온 1800~1900달러에서 10%인 185달러 수준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매량이 늘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금호P&B화학은 수요기업들을 상대로 Epoxy 가격 인상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가격인상은 국내 최대의 Epoxy Resin 생산기업인 국도화학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2월 Epoxy 가격인상 움직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7>